

승고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제48회 광일보훈대상’ 영광의 얼굴들

‘제48회 광일보훈대상’(光日報勳大賞) 시상식이 현충일인 6일 오전 11시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성현 광

주지방보훈청장과 가족·단체 임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질 예정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 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는 이번 행사에는 손승연(상이군경·71)씨, 박삼순(중상이군경 유족 차·77)씨, 신영숙(전몰군경 유족 차·88)씨, 정성채(전몰군경 유족 차·67)씨, 고병돈(특별

부문·76)씨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광일보훈대상은 호국 보훈의 승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광주일보사가 제정, 올해로 48회째를 맞고있다.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상이군경 손승연씨 월남전 2차례 참전...봉사활동 적극 참여

손승연(71)씨는 1966년 9사단 백마부대에 입대, 월남전에 2차례(1차 1967년 12월~1969년 12월, 2차 1969년 12월~1971년 6월)나 참전했다. 1972년 육군 상사로 6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으나, 월남전에서 고엽제를 맞은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지

난 2013년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았다.

1973년 전방군제(주)에 취직, 25년간 근무하면서 노조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직장내 사원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썼다. 그는 봉사활동은 물론 기초질서 확립 계도활동으로 지역내 환경정화 활

동 및 교통질서 캠페인에 앞장섰으며, 지금도 청소년 안전구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깨끗한 광주 만들기 앞장서고 있다. 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광역시지부 복구지원 회원으로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중앙대의원으로 항상 봉사정신을 발휘, 몸이 불편한 고령회원과 중상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편안하게 보살펴주고 기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상이군경 유족 박삼순씨 월남전 후유증 남편 간호...시부모 봉양

박삼순(77)씨는 1968년 맹호부대 수색대 대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해 ‘다보이산’ 전투에서 가슴과 좌측 다리에 수류탄 및 크레모아의 파편으로 부상을 입어 좌측 다리의 신경마비 등으로 1969년 12월 전역해 국가유공자 2급을 받은 이월범씨의 아내다.

박씨는 부상 후유증으로 힘들어 하는 남편을 정성을 다해 간호하며, 고난의 시간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정신적인 버팀목이 됐다. 또 시부모님을 오랫동안 지극 정성으로 봉양하며 주변으로부터 효부라는 칭찬을 받았다.

가정에서는 헌신적으로 시부모님을 모시는 며느리로, 아이들에게는 엄격한 엄마로, 남편에게는 헌신적인 아내로 내조하였음은 물론 본인이 겪었던 어려웠던 일들을 생각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불우 이웃을 돌보았다.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의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노인 공경을 하는 자세를 보여 이웃사랑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몰군경 유족 신영숙씨 6·25 후유증 남편 일찍 여의고 생계 책임

담양군 월산면에서 태어난 신영숙(88)씨는 고(故) 최명숙씨를 만나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1950년 6·25전쟁 당시 직업군인이던 최씨가 보급물품 운반중 다리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운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59세에 세상을 떠났다. 신씨는 갑작스런 남편의 사망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으나 어린 자식들의 생계와 교육을 위해서 농사일·식당 허드렛일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집안을 책임졌다.

신씨는 미망인회 광주시지부 행사도 적극 참여했고, 운암1단지 동대표(13년간)와 새마을 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 식사수발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1978~2010년 까지 매월 1회 어르신들의 목욕과 식사 수발을 돕는 봉사활동을 빼놓지 않았고, 1991년부터 2010년까지 광주 무등산 정화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데도 힘썼다.



전몰군경 유족 정성채씨 11살에 6·25 유족 돼...유족회 왕성한 활동

정성채(67)씨는 초등학교때 아버님을 여의고 1965년 화순경찰서에 재직하다 화순군 동면 구봉산 공산군 토벌작전에 투입돼 북한군과 전투 중 전사한 숙부 고(故) 정순철씨의 양자로 들어갔다. 하지만 정씨는 숙모마저 별세하면서 11살의 나이에 6·25

유가족이 됐다.

화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 7월 만기 전역 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1987년 1월 부인 박희옥씨와 결혼 1남 1녀를 두었다. 결혼 다음해인 1988년 광주대학(아간)에 진학해 대학의 꿈을 이루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1997년 IMF와 함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회사가 부도처리 되는 쓰라림을 겪어야 했다. 이후 2014년 5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광주지부 복구지원장으로 임명돼 친목단체를 만들어 매월 봉사요원들과 함께 독거, 고령, 극빈, 투병 회원을 2명씩 정기적으로 위문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2차례 어려운 삶을 영위하는 회원 10명에게 쌀을 전해주고 있다.



특별부문 고병돈씨 보훈가족·고려인 마을 등 사회공헌 앞장

고병돈(89)씨는 독립유공자인 부친 고(故) 고영완(애족장)의 별세로 유공자의 자격을 수여받았고, 공군장교로 복무하기도 했다.

광복회원인 고씨는 민족정기선양 사업과 국내·외 항일독립운동사적지탐방(동북3성·대한민국임시정

부이동루트·블라디보스톡·하바로프스크 등 러시아 연해주)에도 적극 참여하며, 국외항일독립운동사적지탐방 참가 소년소녀가장의 여행비용을 지원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또 어려운 회원들을 돌아보며 각종 기념식과 행사에 적극 참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나라사랑 정신을 전파했다. 2013~2017년까지는 6·25를 맞아 참전 유공자 약 100명에게 800만원의 점심 및 선물을 제공하며 위문해 보훈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도 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부분이지만 서훈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광주고려인 마을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여 동안 명절 때마다 약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중기부 ‘2021년 창업기업 기술보호’ 호남대, 광주·전남 교육 주관 선정돼

호남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창업보육협회, 중소기업연구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참여하는 ‘2021년 창업기업 기술보호 및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광주·전남 교육 운영 주관BI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호남대 창업보육센터(BI)는 전문인력의 기업 보육 역량을 강화하고 입주기업의 경영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입주기업 및 광주·전남 BI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한다.

또 남부대학교 창업보육센터-광주전남창업보육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입주기업 및 초기-예비 창업 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및 기술보호를 위해 교육 대상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사제로 알아보는 기술유출 대응방안 ▲기술보호계약 ▲기술보호정부사업안내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등으로 오는 9월에 개최하고, 교육에 참가한 기업에는 악성코드(V3)·랜섬웨어(AppCheck) 탐지 프로그램,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등을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호남대 김성수 창업보육센터장은 “2021년 창업기업 기술보호 및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교육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호 역량을 제고해 기술유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고려학원 학사비리 징계 추진을”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3일 “고려학원은 학사비리 관련자들에게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를 상대로 벌인 특별 감사 결과,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고려학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최종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고, 학교법인의 의지와 상식이 부족할 경우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은 사실상 무력화되기 쉽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고려학원에 징계를 재요청하고, 강력하게 지도 감독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사립학교의 징계심의 기구를 교육청으로 두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 동구,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광주 동구는 제3종 시설물 지정과 관리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419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3종 시설물에는 제1·2종 시설물보다 규모가 작지만,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이외 건축물이 포함된다.

동구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연면적 60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준공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의 안전 상태에 따라 양호·주의·관찰·지정 검토 등 3단계로 구분한다.

지정 검토로 평가된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한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매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정기 안전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재조사를 통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